

중국, 멜라민 함유 돼지사료 파문

신화통신, 멜라민분유 2톤 돼지농가에 판매 ... 기준치 515배 초과

불량식품 파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가 돼지사료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충칭(重慶)과 청두(成都) 일대 5곳의 양돈 농가가 기준치를 최고 515배 초과한 멜라민 함유 분유를 돼지사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7월4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축용 사료 중간상인 탕(唐)모씨는 2009년 8월부터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庄)에서 멜라민 분유 6.75톤을 싼값에 사들인 뒤 충칭의 양돈사료상 장(張)모씨와 청두지역 사료상들에게 판매했다. 장씨 등은 탕씨로부터 구입한 불량 분유 2톤 가량을 5곳의 양돈 농가에 어린 돼지 사료용으로 판매했다.

충칭시 사료검역소는 2010년 10월 장씨 등이 유통한 사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자 공안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공안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했던 분유에서 기준치를 최고 515배 초과한 1288g/kg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공안당국은 즉각 탕씨와 장씨를 체포하고 팔다 남은 불량 분유를 압수했다.

문제의 분유를 구입한 양돈 농가들은 “어미 돼지의 젖이 부족해 어린 돼지의 이유식으로 먹였으나 설사 등의 증세를 일으켜 곧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은 멜라민 분유를 섭취한 돼지가 도축돼 시중에 유통됐는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기준치를 초과한 멜라민 분유를 먹은 영아 6명이 사망하고 30여만명이 신장 결석 등의 질환을 앓는 <멜라민 파동>을 겪자 4월 멜라민 허용 기준치를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지만 불량 분유 유통이 끊이지 않으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유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4>